

2005. 2月中 海外市場 需要 展望

2005.2

海外調査팀

KOTRA

전 망 요 약

□ 해외시장 전체 수요

- 세계 경제성장세가 2004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고용여건 호전, 중국의 설비투자 및 생산호조 지속이 계속되는 한편 EU신가입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성장국의 경제·산업 개발이 활력을 제공, 전반적 수입수요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해외시장에서의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

- K OTRA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바이어 482개사 및 주재상사 318개사를 접촉·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의 세계적 경기 호조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고급가전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우리 주력 시장인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권역별 한국상품 수요 전망치 】

	2005.2월 수요 (U\$백만)	2005.2월 수요 (증감,%)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7,421 ~ 7,535	24 ~ 26
북미	3,643 ~ 3,680	8 ~ 9
유럽	3,393 ~ 3,435	6 ~ 7
아시아대양주	2,790 ~ 2,824	7 ~ 8
일본	1,785 ~ 1,799	3 ~ 4
중동아프리카	1,419 ~ 1,441	22 ~ 24
중남미	807 ~ 814	9 ~ 10
CIS	374 ~ 379	44 ~ 47
기타	58 ~ 59	14 ~ 15
전체	21,690 ~ 21,965	13 ~ 15

주1) 증감율은 2004.2월 대비임

2) 한국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추정 계량화한 것으로 실제수출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2004. 2월 중 지역별 전망

- 매우호조 : 중화권, 중동·아프리카, CIS
- 호 조 : 북미, 아시아·대양주, 유럽, 중남미
- 보 합 : 일본

□ 2004.2월 중 품목별 전망

- 매우호조 : 무선통신기기, 가전기기, 철강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 호 조 : 선박, 플라스틱제품
- 부 진 : 컴퓨터, 섬유류

□ 조사대상

- 전체 수입수요 : 무역관 주재국별 주요 경제지표
-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
 - 우리나라 수출의 77% 가량을 점하는 13대 수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계량 추정
 - 해외바이어 총 482개사와 현지 주재상사 318개사

□ 조사방법

- 전체 수입수요 : 경기동향 분석을 통한 주재국 수입수요 예측
-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 : 조사대상에 직접문의

□ 조사결과

- 전체 수입수요
 - 2월 전망 : 2004. 2월 대비 7~8% 증가
-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
 - 2월 전망 : 2004. 2월 대비 13~15% 증가

① 해외시장 전체 수입수요

- 세계 경제성장세가 2004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고용여건 호전, 중국의 설비투자 및 생산호조 지속이 계속되는 한편 EU신가입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성장국의 경제·산업 개발이 활력을 제공, 전반적 수입수요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중화권)** :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조치가 수입물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홍콩은 CEPA에 따른 추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나 춘절 장기휴무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중국의 관세 인하 중국은 지난 1월 1일부로 900여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인하해 평균 수입관세율이 지난해 10.4%에서 9.9%로 떨어졌다.

공산품은 9.5%에서 9.0%로, 농산품은 15.6%에서 15.3%로 각각 인하됐다. 이로써 평균 수입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12.0%(2002년), 11.5%(2003년), 10.4%(2004년)로 낮아진 후 올해 처음 한자리수로 내렸다.

품목별로는 소형 승용차가 34.2%와 37.6%에서 30.0%로 내렸고, 화장품은 14.2%에서 10.0%로 낮아졌다. 디지털 카메라, 가정용 촬영기, 가구, 완구, 게임기 등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됐고, 위스키, 포도주, 보드카 등 주류는 19.2%에서 10.0%로 인하폭이 컸다. 그 밖에 의류, 침상용품, 종이제품 등도 인하대상에 포함됐다.

비관세 장벽 완화

- 2004.12.1부 독자 및 합자 출판유통업 진출 허용
- 양허안 일정에 앞선 호텔업 독자진출 허용(지역에 따라 99%까지 기허용)
- 외국 보험사 영업지역 제한 폐지
- 자동차 수입관세 쿼터 완전 폐지

- **북미** : 연말 쇼핑시즌 집중 이후 소비지출이 다소 소강상태 보이는 상태이나 미국 경제가 견실한 속도(Healthy Pace)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며, 신규고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고 있어 고용시장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 호조가 예상됨
- **유럽** : 영, 독, 불 등 주요국 연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신규가입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입

수요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EU신가입국의 경제동향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른바 중동구권 新 EU-8(키프로스, 몰타 제외)의 작년도 경제성적이 예상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EU 가입이 이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정 발표된 2004년도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2.1%에 불과하지만 新 EU-8 평균 성장률은 5.5%로 이의 2.6배에 달한다. 2007년 가입이 확실 시되고 있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합친 12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5.7%에 달해 EU의 경제성장을 중동구권이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EU-8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

국 명	2003	2004(추정)	2005(전망)
체 크	3.1	3.9	4.0
에스토니아	5.1	5.8	5.5
헝 가 리	3.0	4.0	3.5
라트비아	7.5	8.7	5.5
리투아니아	9.0	7.0	8.0
폴 란 드	3.8	5.7	4.5
슬로바키아	4.2	4.9	5.0
슬로베니아	2.5	4.2	4.0
新 EU-8 평균	4.8	5.5	5.0
루마니아	4.9	7.8	5.0
불가리아	4.3	5.3	4.5
新 EU-8 + (2) 평균	4.7	5.7	5.0

자료 : Eurostat, 각국 잠정 발표자료

新 EU-8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완만하지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4년 말 기준 기존 EU-15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슬로베니아가 72로 가장 높으며, 이어 체크와 헝가리가 65와 5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로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U-8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국 명	2001	2002	2003	2004(잠정)	2005(전망)	2006(전망)
체 크	60	62	63	65	66	67
에스토니아	39	41	43	45	47	49
라트비아	34	36	38	41	43	45
리투아니아	37	39	42	45	48	49
헝가리	52	53	55	56	57	58
폴란드	42	42	43	45	46	47
슬로베니아	68	69	70	72	73	74
슬로바키아	45	47	48	50	51	53
EU-15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Eurostat

이들 新 EU-8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 누적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2003년을 기준해서 보면 에스토니아가 77.6%로 가장 높으며, 헝가리는 51.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체크와 크로아티아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기존 EU-15의 경우 32.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평균은 22.9%이다.

<FDI 누적액이 중동구권 각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

국 명	1995	2000	2002	2003
체 크	14.1	42.1	55.3	48.0
에스토니아	19.3	51.4	65.0	77.6
헝가리	25.3	49.3	55.3	51.8
라트비아	13.9	29.1	32.8	35.1
리투아니아	5.7	2.1	28.1	27.2
폴란드	5.8	20.6	25.0	24.9
슬로바키아	4.2	18.5	32.2	31.5
슬로베니아	8.9	15.3	18.7	15.6
불가리아	3.4	17.9	22.6	29.1
크로아티아	2.5	19.3	31.6	49.6
루마니아	2.3	17.5	19.4	23.4
알바니아	7.4	15.4	18.8	18.1
보스니아	1.0	7.9	13.8	16.4
마세도니아	0.8	11.4	24.7	22.1

세르비아/몬테니그로	2.7	15.3	12.5	16.2
중동구권 평균	5.4	19.2	24.8	23.7
EU-15	13.2	28.5	34.6	32.8
세계 평균	10.2	19.3	23.0	22.9

자료 : UNCTAD, HVB

- **일본** : 올해 성장률은 1.6%내외로 작년 수준(2.1%)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문이 생산 및 설비투자를 늘리는 한편 고용환경의 개선으로 개인소비는 견실하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호조가 전망되며 주요 수출지역(동남아시아)의 태풍 및 해일 피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대양주** : 쓰나미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은 한편, 소비심리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전체 역내 경제 및 수입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베트남 등의 산업생산 증가, 설비투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호조가 예상됨
- **중동·아프리카** : 2005년에도 사회간접 자본투자 및 경제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한편 내구재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수요가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 멕시코의 수출 및 내수 호조, 브라질 헤알화 강세, 칠레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내구성 소비재 판매 증가,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오랜 침체에서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호조가 예상됨
- **CIS지역** : 러시아는 1월 장기 휴가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에 들어가며 우즈베키스탄의 경공업 분야 가속화, 카자흐

스탄의 수출호조 및 산업생산 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환율 동향>

월	엔/USD	USD/유로	원/USD
2004.1	105.9	1.24	1,173.6
2004.2	109.5	1.24	1,174.5
2004.3	105.8	1.22	1,153.6
2004.4	109.9	1.20	1,167.7
2004.5	110.4	1.22	1,165.7
2004.6	108.3	1.21	1,152.5
2004.7	112.2	1.20	1,171.3
2004.8	110.5	1.20	1,153.8
2004.9	111.1	1.23	1,147.9
2004.10	106.3	1.27	1,126.0
2004.11	102.9	1.33	1,047.9
2004.12	103.1	1.36	1,035.1
2005.1	103.7	1.30	1,026.4

*매월 말일 기준

자료원 : 한국은행

② 우리상품에 대한 지역별 수요전망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바이어 482개사 및 주재상사 318개사를 접촉·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의 세계적 경기호조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고급가전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우리 주력 시장인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중화권) : 2004년 중국의 무역액이 1조 1,547억이라는 기념비적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생산-내수-외상투자 호조가 이어지는 한편 홍콩의 경기회복에 의한 내수활동 가시화와 중국 관광객 대거 유입에 따른 관련 산업 호조, 2단계 CEPA에 따른 혜택 등이 예상되고 있어 산업용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한 대한수입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북미 : 우리 주력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한 각국의 반발 확산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각 기업별 인프라 확충 및 산업별 재투자 증가, 고용 안정 및 가구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 호조가 전망됨
- 일본 : 경기 자체가 기조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엔고 지속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붐이 일반상품 구매 확대로 연결될 것이 기대되고 있어 IT, 가전 판매 부진 등 일부 불투명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소폭의 증가세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 유로 지역에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고급가전 등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수요가 상승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EU신규가입국의 경우 경기호조, EU자금 유입, SOC프로젝트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어 호조가 예상됨
- **아시아대양주** : 싱가포르의 정유, 석유화학, 해상운송, 물류산업의 호황 지속, 태국진출 우리 기업의 마케팅 강화 및 생산 호조, 주요국들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플랜트 및 관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동아프리카** : 연간 1천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건설플랜트시장의 경우 국내업체들의 진출이 두드러져 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아지역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수출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을 통하여 작년 못지않은 물량이 계속 수출될 것으로 전망,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 2005년 중남미 경제는 4.0%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회복 및 수출증가로 자본재 , 부품소재류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플랜트, IT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CIS** : 러시아의 2004.1~11월 산업생산증가율이 6.2% 성장을 보이는 등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상품 인지도 상승, 우크라이나의 첨단 IT제품 수요 확대, 카자흐스탄의 제조업육성정책 본격 가동 등에 힘입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 수요전망>

지역	2005.1월 전체시장 수요 (증감율)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	
		2005.1월 전망(증감율)	
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	17 ~ 18%	 (매우호조)	24 ~ 26
북미	6 ~ 7%	 (호조)	8 ~ 9
유럽	5 ~ 6%	 (호조)	6 ~ 7
아시아대양주	7 ~ 8%	 (호조)	7 ~ 8
일본	9 ~ 10%	 (보합)	3 ~ 4
중동아프리카	9 ~ 10%	 (매우호조)	22 ~ 24
중남미	12 ~ 13	 (호조)	9 ~ 10
CIS	18 ~ 19%	 (매우호조)	44 ~ 47
전체	7 ~ 8%	 (매우호조)	13 ~ 15%

주 : 증감율은 전년동월 대비임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종합

 (매우호조:10%이상)
  (호조:5 ~ 10%)
  (보합:3 ~ 5%)
  (부진:1 ~ 3%)
  (매우부진:1%미만)

③ 우리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전망

- 자동차 : 중동 지역에서 일본의 아성을 깨고 대부분 국가에서 점유율 3위권 내에 드는 등 약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선진국 시장에서 다양한 디자인 및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부품 : 완성차와 부품의 수입쿼터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완성차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되는 등 본격적 개방기를 맞이한 중국시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타이어 : 미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우리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한편 자동차메이커들의 아웃소싱 붐은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제품·중고제품을 불문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무선통신기기 : 북미 시장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양한 부가기능이 중요 구매 포인트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제품이 소비자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무선통신기기 관련 수요는 특히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컴퓨터 :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강화되는 한편 우리 주력품목인 모니터가 업체간 경쟁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진이 전망됨

- 반도체 : 올해 반도체 시장은 2004년 수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IT제품 생산-수출 호조 지속과 더불어 2005년 1.1일부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전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가전기기 : 일본에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분야 등에 대한 고급 시장 공략과 함께 소형 제품 등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 확대가 주효하고 있으며 중동 시장에서 대형,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등과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섬유류 : 전반적 가격 경쟁력 약화로 시장을 상실하는 추세에 있으나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고급 원단 등에 대한 중국의 대한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반기계 : 중국의 기계류제품 수입관세 인하,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섬유류 생산·수출 증가, 발전 설비 산업 호조와 중동 지역의 탈석유화 육성 정책에 따른 생산설비 및 기계류 수입 장려 등에 힘입어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선박 : 기수주 물량의 인도로 매출상으로는 호조가 이어질 것이나 후관 가격의 상승, 원화절상 등의 영향이 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선별적 수주에 따라 향후 전체 수주물량의 대폭적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 철강 : 북미시장에서 2004.11월까지 철강 신규주문이 크게 증가, 적어도 2005.2월까지는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 호황과 철강 단가 상승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호조가 예상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석유화학제품 :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 춘절연휴의 영향으로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나 국제유가 인상, 원자재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5-10% 인상되어 물량감소 효과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CIS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호조에 따른 관련 석화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플라스틱제품 : 품질과 가격경쟁력 면에서의 강점으로 미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품목에 편중 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지역별 수요(증감율) 전망>

	유럽	아/대	중화	CIS	중남미	중/아	북미	일본	전체
일반기계									
2월									
3-12월									
자동차									
2월									
3-12월									
선박									
2월									
3-12월									
철강제품									
2월									
3-12월									
석유화학제품									
2월									
3-12월									
섬유류									
2월									
3-12월									
컴퓨터									
2월									
3-12월									

	유럽	아/대	중화	CIS	중남미	중/아	북미	일본	전체
무선통신기기									
2월									
3-12월									
반도체									
2월									
3-12월									
가전기기									
2월									
3-12월									
타이어									
2월									
3-12월									
플라스틱제품									
2월									
3-12월									
자동차부품									
2월									
3-12월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임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종합

 (매우호조:10%이상)
  (호조:5~10%)
  (보합:3~5%)
  (부진:1~3%)
  (매우부진:1%미만)